
인간답게 평등하게 그래서 인권



김찬곤 글 | 김주경 그림 | 152쪽

- 4학년 1학기 사회 3.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 4학년 2학기 사회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 6학년 2학기 사회 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4학년 도덕 8. 다양한 문화, 조화로운 세상
- 5학년 도덕 6.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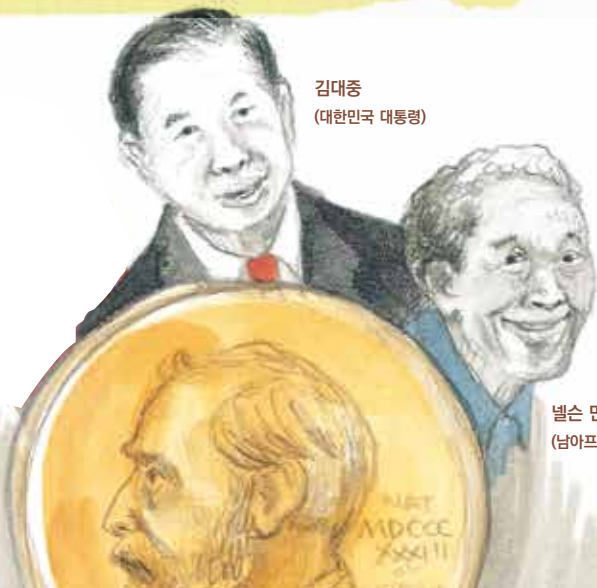
‘인권’ 하면 처음부터 복잡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런데 인권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인권은 한마디로 ‘상식’이라 할 수 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일수록 건강한 사회이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 또는 상처를 주는 것,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사생활의 비밀을 지킬 수 없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인권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인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권, 참정권, 장애인 권리, 환경권 등 각 분야의 인권 운동가 이야기를 통해 인권을 설명한다.

(학습 목표)



국가와 정부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써야 한다. 또 ‘헌법과 법률’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헌법과 법률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아가면서 하나하나 보태고 다듬어져 오늘날의 헌법과 법률이 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인권 운동가’들이다. 세계 인권 운동가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기도 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도, 법도 없었을 것이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상식’이었다. 이 세상을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꾸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처음부터 상식이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될 것이다.

- 인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정리해 보자.
-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법으로 보장했던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자.
- 이슬람 사회의 여성 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 세계 어린이들의 인권 침해 현장을 조사해 보자.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독전 활동)

다음 사례를 들려주고,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발표해 보자.

2011년 11월 가나·스리랑카·미국·독일인 네 사람과 김해성 목사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크레파스 색상 이름 '살색'이 '피부색을 차별한다'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크레파스 색상 이름 '살색'이 살구빛을 띠는 '황인종'만 뜻하는 것이라면 흑인과 백인에 대한 차별이 분명하다 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색상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2003년 11월 '살색'을 '연주황'으로 고친다. 그러자 이번에는, 초등학생 다섯명과 중학생 한 명이 너무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황을 쓰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2005년 3월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주황' 대신 '살구색'으로 크레파스 색상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한다.

➔ 위의 이야기를 읽고 각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얘기해 보자.





(독후 활동)

정부 관청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을 알아보자.

- ➔ 국가인권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인권이와 차별이의 별별이야기(<http://blog.naver.com/nhrck>)'를 방문하여 둘러본다.
- ➔ 유튜브에서 '국가인권위 단편 영화'로 검색하여 단편 영화를 골라 아이들과 같이 보자. 박재동이 찍은 애니메이션 <사람이 되어라> 같은 영화도 좋겠다.

